

2023 년 8 월 13 일 “여호수아(16) 유업으로 받은 땅의 의미”(수 19:49-51)

이스라엘은 땅을 확보함으로써 온전한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들이 얻은 땅에서 어떤 삶이 약속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분배 완료

18-19 장에는 남은 7 지파(베냐민, 시므온, 스블론, 잇사갈, 아셀, 납달리, 단)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성읍(딤낫세라)을 받습니다.

분배의 시작은 갈렙이었고(14 장 초반), 마지막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믿음의 일꾼으로 상징되는 두 사람은 유업은 믿음으로(약속을 믿고, 뜻과 방식을 따름) 받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이 약속의 땅은 안식의 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떤 배경에서일까요?

[2] 안식의 땅

히 3:7 이하에서 하나님은 광야 1 세대를 향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식은 가나안 땅입니다.

안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평안한 쉼을 뜻하지 않습니다. 창 2 장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창 2:2 “...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 샤바트(안식)

창 2:3 “...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복되다’ -> 축복한다, 찬양한다, 유익한 능력을 부여한다.

‘거룩하게 한다’ -> 순수하고 순결하게 구별한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 날로 초청된 피조물에게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며 그들을 순수하게 구별하십니다. 이것은 피조계(인간 포함)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다스림의 대상임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식 안에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므로 사람을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고,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들이 땅을 잘 다스려서 복과 거룩이 부요한 에덴의 회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안’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얻은 가나안 땅은 오늘 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을 상징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사랑의 승리를 맞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요 15:5)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세상에 발을 대고 살고 있지만, 뜻과 의지와 방식과 가치관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 중심의 본으로 삼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소유하여 가꾸고 지키며 다스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서 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과 거룩을 경험하며, 그것에 대한 추구와 열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복이란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하나님의 성품과 순종의 즐거움입니다. 또 거룩이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존재로 구별된 것입니다. 내가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어려움이 닥치면 조급해지고 분노하고 우울해져서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나의 노력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오직 사랑받는 자녀라는 깊은 자각과 경험이 나의 삶에 새로운 생명과 성품과 방식을 열어주는 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펼쳐갈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성품의 세계, 즉, 복과 거룩의 차원으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로서 새 방식, 새 성품, 새 가치관의 복과 거룩의 차원을 발견하고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 2:3 참고)
2. 내가 복을 받고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언어로 설명해 봅시다.